



“규모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 받을 수 있어야”

- 한덕수 총리, 11일 뇌혈관 전문 ‘명지성모병원’ 방문해 의견 청취
- “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 마련하라” 지시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, 병원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다음 사항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긴급지시하였습니다.

① 복지부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

- 이러한 지시는, 병원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
-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별 기준*이 적용되고 있어,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데, 이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.

* (요양기관 종별 가산율) 상급종합병원 15%, 종합병원 10%, 병원 5%, 의원 0%

②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대국민 홍보를,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·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고, 지역 간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복지부가 지정한 필수분야 전문병원이 고려되도록 할 것

- 이러한 지시는, 심뇌혈관 질환 환자와 같은 긴급 환자는 근처에 전문 병원이 있으면 이곳에 먼저 이송가능함에도,
- 일선 구급요원들이 규모가 더 큰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먼저 이송했다가, 제일 나중에야 전문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해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.
- 앞으로 대국민 홍보와 일선 구급요원에 대한 정보 교육이 강화되면, 더 많은 환자들이 곧바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어 적기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 필수의료의 전달체계가 보다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“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국민이 빅5 병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, 국민 누구나 ‘우리 동네 빅5’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”고 하였습니다. 한 총리는 “전문병원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명지성모병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 맞는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”며, “정부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”고 밝혔습니다.

○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,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·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.

○ 정부 관계자는 “의료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·의원(1차)-중소병원·전문병원(2차)-상급종합병원(3차)으로 연결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, 그러려면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”고 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성현국 (044-200-2293)
	사회복지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김나진 (044-200-2294)

